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금융그룹 리스크관리 비용 급증 예상

□ 딜로이트(Deloitte) 컨설턴트사는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세계 100대 금융그룹이 금년에 리스크관리 비용으로 2006년의 2배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측함.

- 딜로이트가 주요 보험·은행그룹의 리스크관리 담당 CRO(Chief risk Officers)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, 조사대상 중 73%가 금년의 준법감시, 리스크관리, 회계감사 관련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2012년에는 세계 100대 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비용이 1,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됨.
- 금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관리 비용 중 약 200억 달러는 금융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리스크관리 비용 중 대부분은 Solvency II나 Basel II와 같은 보험·은행권의 새로운 자본적정성 기준 시행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.
 - 그밖에 리스크관리에 투입될 인력확보, 리스크모델 및 의사결정과정 연계 개발, 리스크관리 컴퓨터시스템 대체에도 비용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 - 특히, 시장리스크나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인력관리 및 시스템 관리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- 은행권의 경우 실시간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, 이를 통해 특정 개인·부서·사업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거래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
□ 그러나 대다수의 금융그룹들은 막대한 규모의 리스크관리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리스크관리를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최고경영자 및 CRO들 중 단지 55%만이 리스크와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부서 중에는 회계감사부서가 리스크와 임금체계를 가장 많이 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실시도 단지 40%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(Financial Times, 2/8)